

▲ 코스피지수 1,356.02 (+19.21) ▲ 코스닥지수 509.90 (+12.71) ▲ 금리 (국고채 3년) 3.72% (+0.03) ▼ 원·달러 환율 1,348.50원 (-0.4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 ‘감칠배기’ 멸종 위기

〈광주·전남 김치 공동브랜드〉

출시 4년만에 … 예산 지원 끊겨 유통망 대부분 폐쇄

참여업체도 급감 … 김치산업화 사후관리 전혀 안돼

‘김치 종가’(宗家)라고 자부하는 광주·전남이 내놓은 김치 공동브랜드 ‘감칠배기’가 식탁에서 사라지고 있다. 열세한 지역 김치업체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지원만으로는 자립토대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후관리를 소홀히하는 때문이다.

22일 광주시와㈔광주김치협회 등에 따르면 ‘감칠배기’는 현재 국·내외 주요 유통망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매장과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의 광주·전남김치산업육성사업단이 지난 2005년 11월 공동브랜드로 출시한 이후 4년 만에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사업단은 지역 대표 명품 브랜드 육성을 통한 김치 산업화를 목표로 2004~2007년 국비 48억 원과 광주시·전남도의 예산 지원(각각 4억8천원

원) 등 57억원을 투입, ▲유통망 구축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컨설팅 지원 ▲해외 시장 개척 ▲기술개발 등을 주진했다.

그러나 2007년 6월 예산지원이 끊긴 이후 국내 유통망은 대부분 폐쇄됐다. 우선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 마련했던 대리점 7곳은 모두 문을 닫았다.

경남지역 유통망 확보를 위해 창원에 설치했던 2호점도 철수했다. 자체 쇼핑몰만 남겨 두고 8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판매 계획도 모두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한 때 1억8천만원에 달했던 매출액은 1억원 정도로 감소했다.

참여업체도 크게 줄었다. 처음 공동브랜드 제작에 참여했던 광주·전남 13개 업체 가운데 전남 7개업체는 사실상 손을 떼는 수순을 밟고 있으며, 광주 3개 업체도 생산을 중단했다.

중국의 현지법인 설립 계획과 미국·일본·홍콩 등 대형 마트에 입점, 판매한다는 구상도 흐지부지됐다.

사정은 이렇다. 사업단 해체 이후 열악한 자금력 문제가 됐고 공동관제법인인 ㈜감칠배기의 운영 주체가 확실하지 않아 표준 조리법이 지켜지지 않았다. 기존의 김치 맛이 실종된 것이다.

각종 홍보 활동도 사실상 중단됐다. 저렴한 중국 김치가 판치는 마당에 안전식품임을 증명하는 HACCP 인증도 받지 못할 정도로 고급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참가업체가 자체 판매망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참여업체들이 사업단이 해체돼 자금 지원이 끊기자 사실상 빨뿔이 흘어져 공동브랜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남도 김치의 산업화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전문 업체를 선정, 생산체계·유통망·위생시스템 등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역할을 뒤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등 관계 당국의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는 얘기도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1천원 수출때 국내 부가가치 600원

## 수출 부가가치 창출 효과 하락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부가 가치 창출 효과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탈피해 서비스업 등 내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07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600으로 집계됐다. 이는 1천 원치어 상품을 수출했을 때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임금, 영업잉여)가 6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00년 0.633, 2005년 0.617, 2006년 0.609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반면 수출에 의한 수입 유발 정도

를 나타내는 수입유발 계수는 2006년 0.391에서 0.400으로 상승했다. 수출을 하면 할수록 원자재 등의 수입도 늘어나 그만큼 소득이 해외로 이전된다는 것을 뜻한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떨어진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 산업의 평균 수입투입 비중은 2006년 13.0%에서 2007년 13.6%로 상승했으며 특히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21.9%에서 22.6%로 올랐다.

수입투입 비중이 커지면서 국내 전 산업의 부가가치율도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40.1%를 기록했다. 이는 1천 원을 생산했을 때 새로 창출한 부가가치가 401원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연합뉴스

## 코스피 연중 최고치

6개월만에 1,350 회복 … 환율도 하락

미국발 호재와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 등으로 코스피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국내증시가 상승행진을 이어갔다.

22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9.21포인트(1.44%) 오른 1,356.02를 기록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종가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물론 1,367.69로 마감했던 지난해 10월14일 이후 6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코스닥지수도 12,71포인트(2.56%) 오른 509.90을 기록하며 종가기준으로 5거래일 만에 500선을 회복했다.

전날 뉴욕증시가 은행들의 자본이 충분하다는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으

로 반등한 데다 LG전자의 ‘깜짝실적’으로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가 다시 고조되면서 최근 단기급등에 따른 벨류에이션(가치평가) 부담을 딛고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천 861억원을 순매수하며 하루 만에 ‘사자’로 돌아섰고 개인도 1천245억원을 순매수했다. 이에 비해 기관은 대규모 프로그램 순매도(4천129억원)를 중심으로 3천56억원을 순매도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순매수를 바탕으로 한 주가 강세로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환율 1원 내린 1,348.5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대우일렉 “내년 2월까지 광주 이전”

인천 공장 철수 … 글로벌 백색가전 재편

이상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 사장은 22일 “글로벌 백색가전으로 거듭나기 위해 광주공장을 중심으로 한 재편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광주공장을 방문한 이 사장은 경영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대우일렉은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인천 본 공장에서 철수해 광주공장에 백색가전의 핵심 역량을 집

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구조 자체를 전환하게 만들기 위해 공장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는 투명경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우일렉은 앞서 지난 15일 영상사업과 비주력 제품사업을 정리하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 백색가전 핵심제품에 집중해 글로벌 백색가전 전문회사로 재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는 내년 2월까지 광주 공장을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대우 일렉 협력업체들이 빠르면 6월부터 광주로 공장을 옮겨올 것에 대비해 평동산업단지에 마련해 두고 부지구입 보조금, 시설보조금 등 각종 금융·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대우일렉 클라쎄 드럼세탁기 출시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이상(왼쪽)사장이 최근 광주공장이 생산한 신제품 클라쎄 드럼세탁기 ‘드럼업 II’를 홍보하고 있다.

대우일렉은 온라인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주부 파워블로거들을 통해 이 세탁기의 마케팅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

## 대우 세탁기 ‘드럼업 II’ 마케팅 강화

체험단 ‘클라쎄 프로 3기’ 본격 흥보 활동

대우일렉이 온라인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주부 파워블로거들을 통해 최근 출시한 클라쎄 드럼세탁기 ‘드럼업 II’의 마케팅 활동에 나선다.

대우일렉은 22일 지난달 모집한 드럼업 II 체험단인 ‘클라쎄 프로 3기’의 발대식을 갖고 오는 6월 중순까지 홍보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클라쎄 프로 3기’는 1천여명에 달하는 주부 신청자들이 운영 중인 블로그를 심사해 선발한 5명의 ‘파워 블로거’

들로 구성됐고, 대우일렉은 약 두 달 간 체험단의 온·오프라인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 미션을 완수한 블로거 전원에게 제품을 무료로 증정하고, 우수 블로거 2명에 대해서는 특별 사은품을 제공한다. 신제품 체험단인 ‘클라쎄 프로’는 지난해 드럼업 세탁기 출시와 함께 출범, 온라인 홍보와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 제품을 알리는 대우일렉 고유의 체험단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창의떡집 프랜차이즈 카페

‘예다손’ 4,5호점 이달 오픈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떡업체인 창의떡집(대표 임철한)의 프랜차이즈 떡 카페 ‘예다손’이 이달 말까지 4,5호점인 서구 금호점, 북구 일곡점을 오픈한다.

떡 카페 ‘예다손’은 지난 2월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1호점을 개점한 이래 지금까지 광산구 첨단점, 서구 상무점을 잇따라 열었다. 창의는 여수, 전주 등 전국 500곳에 프랜차이즈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대인동삼일부동산

(☎) 223-1140, 5210 원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끌라  
를 건물은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 수완지구

### 상가임대 및 분양

#### • 수완최고상업지역 버스정류장 옆

월드프라자(1~5층) 3월말 준공 금은, 안경점,

브랜드 의류, 편의점, 독서실, 약국, 병원, 한의

원, 학원, 독서실(이비인후과 임점 확정)

#### • 메인도 35×12×6m 버스정류장 옆 5층건물

송원프라자(즉시 입주가능)

식당, 편의점, 한의원, 학원, 독서실

#### • 토지 중개 및 개발 컨설팅

#### ● 수완 상업지역 최고요지 최저가 매물 다양화보

개발 상담 및 토지중개는

코리아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 062) 959-1033, 019-608-3372

## 현대공인중개사

☎ (062)371-1900, 팩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 토지 매매

#### ① 토지 최적지 (전원주택, 친고, 광장부지)

• 국가 산단단지 인근, 5561㎡  
(약 1682평) 관리지역, 현재 고수

율매매가 2억 3천만원

• 전시지정 정비공장부지

- 광송간 도로변

• 신촌동 주거지역 대지 337평  
평당 200만원

• 카센타 식당부지

- 광송간 도로